

# 신정아 추천인사 왜 못 밝히나

## ■ 광주비엔날레 이사진 총사퇴

광주비엔날레가 재단 이사진 전원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창설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아시아 최고를 자부해온 광주비엔날레의 위상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재단 이사진은 신정아 감독을 둘러싼 발탁배경, 선정경위, 위압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총사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지 못했다. 이사진 총사퇴는 결국 오는 10월 5일 열린 예정인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광주비엔날레 등 재단의 현안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의혹 못 풀채...창설 13년만에 최대 위기

광주비엔날레 재단 한갑수 이사장은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 감독의 선임배경에 대해 "외압은 없었으며, 후보들이 감독직을 고사하거나 부절적 사유가 생겨 결국 신씨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추가해명을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강연균 이사는 이 자리에서 "(신정아에서)감독추천을 기명으로 하자고 결정할 이상 신정아씨 추천자를 밝혀야 한다. 왜 추천한 사람을 밝히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한 이사장은 "추천자를 공개할 경우 차후에 감독을 추천할 사람이 영입될 수 없다"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감독 선정권을 친 한 이사장이 감독 후보 추천자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신씨 사건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게 됐다.



광주비엔날레 법정대리인인 서한기(왼쪽) 변호사가 '가짜 박사 학위' 피문을 일으켜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이 철회된 신정아씨에 대한 고소장을 18일 오전 광주지검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 외국인 단일 감독체제로

재단 이사회가 오쿠리 엔위저 단독감독제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내년 7회 비엔날레는 외국인 감독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사법적이고 관념적인 전시철학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엔위저씨가 대중성과 예술성을 요구하는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노하우 전무... '성공 비엔날레' 의문

특히 미술계에서는 비엔날레가 6회 행사를 치르는 동안 외국인 감독체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보조감독과 보조 큐레이터를 선임할 예정이지만, 역할과 한계를 두고 뚜렷한 경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협

화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이사진 총사퇴로 광주시의회 의장 등 8명의 당원직 이사가 보조 감독 선임에 나설 예정이지만, 국내 보조감독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임과정에서 예술총감독 선임 못지 않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 검찰수사 어떻게 되나

### '학위 위조' 초점

### 비호 여부도 조사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신정아씨를 18일 광주지검에 고소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형사1부 김충한 부부장에게 배당했다.

고소장은 한갑수 재단이사장 명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3가지 혐의로 작성됐다. 이중 가장 무거운 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은 우선 재단 측이 고발한 ▲신씨의 학력 위조 사실 여부 ▲허위 증명서 제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 감독이 출국 상태여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신씨가 피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다.

길게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범죄인 인도협상이나 인터폴을 이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신씨 학위 가짜 여부와 제출경위에 수사의 초점을 두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수사확대 여지를 남겨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선장없는 재단 파행 불가피

신정아 가짜학위 피문을 수사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 등 이사진들이 총사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재단의 파행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에 참가하는 당원직 이사 8명 가운데 사실상 미술전문가는 광주미술 회장과

예총회장, 시립미술관장 등 3명 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내년 개최 예정인 제7회 비엔날레 등 비엔날레와 관련,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어려워 행사 준비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갑수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재단의 최고 수장을 선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등 중대사안을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당장 10월 디자인비엔날레부터 차질

예총회장, 시립미술관장 등 3명 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내년 개최 예정인 제7회 비엔날레 등 비엔날레와 관련,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어려워 행사 준비

## ■ 가족들이 본 신정아

가짜 학위 피문을 일으킨 신정아씨 가족들은 신씨 학위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한 암자에 기거 중인 신씨의 어머니 이모(63)씨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아가 절대 그럴 리 없다. 나중에 보면 안다. 절대 아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일 터지고 전화가 왔을

## 엄마 "공부 잘했다" 오빠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데 '한국에 들어가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이씨는 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똥 부러지고 똥똥했다"며 "악기도 잘 다뤘고 어린이회장도 했다. 공부도 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어서 애어백이 8개나 달린 BMW승용차를 사줬다"며

"남편이 주유소도 하고 택시회사도 하면서 물려준 재산이 많아 (정아를) 생각해서 사줬다"고 말했다. 신씨의 큰 오빠(41)가 재직 중인 국내 모 기업 관계자는 "큰 오빠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됐고 평소에도 가족 제사 때 가끔 불 정도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영기기자 perfoot@kwangju.co.kr

## 한나라 경선 한달앞으로...광주·전남 판세·움직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8월 19일)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 진영은 19일 검증 청문회와 이후 전국 합동 연설회 및 TV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경선후보 진영은 그동안 대선 승리를 위해 공들여온 호남지역에서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 李 6개월째 1위, 朴 맹추격 조직 총가동 막판 표심잡기

◇호남 판세, '李 우세 朴 추격' =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우세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그 격차를 좁혀나가는 양상이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광주·전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개월째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호남 출신 유력 대선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한 지난 1월 16일 직후부터다.

지난달 9~11일 실시된 광주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P)에서 이 후보는 25.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박 후보는 10.3%로 범여권의 손권규

전 경기지사(10.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고건화·원희룡·홍준표 후보는 1% 미만에 머물렀다. 이보다 2개월 전인 지난 4월 12일 광주일보·한국갤럽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이 후보가 26.3%, 박 후보는 9.6%를 기록, 각각 1위와 2위를 달렸다. 근소하지만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다.

이보다 2개월 전인 지난 4월 12일 광주일보·한국갤럽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이 후보가 26.3%, 박 후보는 9.6%를 기록, 각각 1위와 2위를 달렸다. 근소하지만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다.

이날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내일신문이 지난달 28일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호남 지역 대선민심 조사에선 이 후보가 26.3%, 박 후보는 10.0%를 얻어 지난 2월 조사때 이 후보 32.3%, 박 후보 7.0%보다 차이가 줄어든

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 민선4기 1년 시정 운영 미흡"

### 광주시시민단체협의회 평가

광주시의 민선 4기 1년간의 시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오전 광주YMCA 백제홀에서 '민선 4기 지방자치 1년 평가토론회'를 열고 "문화도시 사업 추진체인 광주시가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경제공약은 과장돼 있고, 행정도 자치·분권의 기능을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흥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박광대 시장은 13만 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후 시에서 자동차, 가전, 광산업의 일자리 수를 8만개에서 4만5천여개로 하향조정했고 아마저도 고용 증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희준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아래에 명기된 곳은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p><b>4. 성형외과 전문의(가)</b></p> <p>1.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2.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3.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4.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p>	<p><b>5. 성형외과 전문의(비)</b></p> <p>1.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2.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3.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4.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p>	<p><b>6. 성형외과 전문의(비)</b></p> <p>1.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2.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3.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4.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p>	<p><b>7. 성형외과 전문의(비)</b></p> <p>1.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2.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3.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4.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p>	<p><b>8. 성형외과 전문의(비)</b></p> <p>1.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2.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3.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 4.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2) 333-1111</p>
---	---	---	---	---